

第二部 (田作物部門)

1. 소맥파성정도의 품종간 차이

(농촌진흥청 맥류연구소) 조장환, 하용웅, 남중현*

우리 나라에서 육성되었거나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육종재대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품종 및 계통들에 대한 파성정도들 검정 하였는데

- 1) 파성정도 I - III의 준파성 품종은 파종을 소거 시키지 아니한 조건하에서 재배하여 지엽 전개까지 일수로 분류하였으며 파성정도 IV-VI의 추파성 품종은 저온 처리기간의 장단과 지엽 전개까지 일수를 가지고 분류하였으며
- 2) 우리나라 2개의 육성모지인 수원에서는 파성정도 IV-V의 품종이, 밀양에서는 III-IV의 보다 낮은 추파성이 육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.

2. 파종기 이동에 따른 소맥 등숙기간의 품종간 차이

(농촌진흥청 맥류연구소) 조재염, 조장환, 이 구, 명돈재*

小麥의 播種期 및 日長條件이 小麥品種의 登熟期間에 미치는 影響을 調査하였던바

- 1) 出穗期와 登熟期間 사이에는 高度의 負의 相関이 있었으며 早熟化栽培할수록 相関係가 높았고 各 品種間의 出穗期 變異幅도 컸다.

- 2) 千粒重은 30 ~ 40 日頃에 最高가 되고 그後에는 微微하게 減少되었다.
- 3) 乾物重은 適期 栽培에서 보다 早播栽培에서 높았고 登熟期間이 짧은 品種群에서 높았다.
- 4) 粒의 水分含量은 開花後 40 日까지 계속 減少되며 特히 開花後 20 日까지는 急激히 減少되었다.

3. 파종심도에 따른 소맥 관부심도의 품종간 차이

* (농촌진흥청 맥류연구소) 조장환, 맹돈재

조숙품종은 일반적으로 내한성이 약하며 조숙품종의 보급을 위하여는 파종을 다소 깊이하면 동사들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관부심도가 깊은 품종을 선발코저 본 시험을 실시하였음.

- 1) Source 별 파종심도에 따른 발아율을 보면 일본품종 유럽품종이 발아력이 좋고 9 cm 이상 깊이 파종하면 60% 이하의 발아율을 나타냄
- 2) 파종심도 3 cm에서 90% 이상 발아되는 품종은 조광외 13 품종, 60 cm에서 80% 이상 발아하는 것은 밀양 5호외 17 품종, 9 cm에서 80% 이상 발아하는 것은 밀양 5호외 3 품종, 12 cm에서 70% 이상 발아하는 것은 밀양 5호외 5 품종이었다.
- 3) Source 별 초엽장. 지중경형성을 및 한해들 보면 초엽장은 일본 품종이 짧고 3 cm 파종시 지중경형성은 일본품종이 높았으며 한해는 한국 및 미국품종이 강하였다.